

『소현성록』의 여성들

백 순 철*

1. 머리말
2. 엄정한 家權과 따뜻한 모성의 女家長 : 양부인
3. 여권수호와 욕망의 여성주체 : 소현성의 아내들(화, 석, 여부인)
4. 역할확보를 통한 자기 정체성 찾기 : 석파
5. 맺음말

초 록

본 논문은 가부장제가 성리학적 이념에 의해 점점 더 강화되어가는 17세기 후반에 산출된 장편 소설 『소현성록』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의 일환이다. 이 작품은 사대부 남성작가의 작품들과 달리 소설 속 여성들의 형상이 매우 생동감있게 드러날 뿐더러, 당대 여성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 속에 가장 큰 비중으로 존재하는 여성 인물들 각각의 분석을 통해서 그녀들의 힘, 주체적 성격 등을 살피므로써, 외면적 주체인 효의 실천 외에 이 작품이 가지는 **지향**을 포착하는 데 이 글은 중점을 둔다.

먼저 여가장의 존재적 의미를 통해 여성의 능력과 힘을 살피고, 다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욕망을 추구하는 아내들을 통해 주체적인 여성의 면모들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존립근거를 확보하려는 석파의 모습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고찰하는 것으로 본문은 전개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 작품의 여성작가적 면모를 다시금 확인하고, 장편 소설 속에 존재하는 여성들의 형상을 읽어내는 다양한 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마

* 고려대 강사.

지막으로 가문소설과 가문의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간략히 피력한다.

1. 머리말

본고는 17세기 장편소설의 중요한 국면을 보여주는 작품인 『소현성록』의 여성인물들을 여성주의적 시각¹⁾에서 해석함으로써 그 소설사적 위상을 살펴보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 동안 『소현성록』에 대해서는 작가와 창작시기,²⁾ 이본,³⁾ 소설사적 의미⁴⁾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의 소설사적 위상에 대해서는

1) 여성주의적 시각이란 여성적인 관점에서 문학작품을 바라봄으로써 기존 정권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관행을 찾아내어 그 가치를 재평가하거나, 여성작가의 작품속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찾아내는 비평적 시각을 말한다.

2) 박영희, 「『소현성록』연작 연구」, 이화여대박사논문, 1994;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고소설학회, 1998).

3)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교학연구사, 1983); 임치균, 「연작형삼대록 소설 연구」(서울대박사논문, 1992); 임치균, 「『소현성록』연구」, 『한국문화』 16(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박영희, 「『소현성록』연작 연구」(이화여대박사논문, 1994).

4) 박영희는 이 작품의 연작상황과 파생작의 존재양상, 형성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18세기 이후 장편가문소설은 이 작품을 토대로 출현하였다고 설명한다(박영희, 앞의 논문). 정창권은 그 소설사적 비중에는 동의하되 이 작품을 장편가문소설로 귀속시킨 논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등과 함께, 조선 후기 소설사에 또다른 전범적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즉 사대부 창작 소설들이 17세기 이래 조선조 사회에 급격히 강화되는 가부장제 가문의식에 조용하면서 18세기 이후 거질의 장편 가문소설의 출현을 예비했다면, 『소현성록』은 그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자존의식을 표출하고 그녀들만의 세계를 탐색하며 그와 또다른 여성주의 소설사의 전통을 뿌리내렸던 것이다. 특히 『소현성록』은 18세기 이후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이나 『설소저전』과 같은 장단편의 본격적인 여성주의 소설의 출현을 뒷받침하면서 조선 후기 소설문화를 다변화시켰다.”(정창권, 앞의 글, p.294).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다.

소설사에서 17세기는 매우 문제가 있는 시기이다. 많은 논자들이 다양한 소설양식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이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아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장편소설의 논의에 있어서는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가문소설의 존재와 소설사적 의미를 밝히는 데 이 연구들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들만으로 작자미상의 조선후기 장편소설들을 온전히 다 설명해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소설들의 작가는 당대 최고 문벌에 속하는 사대부 남성들이며, 이 작품들 속에는 문벌사회의 이상적 가치가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선후기 장편소설들 가운데에는 이와는 현저히 다른 지점에 위치하는 작품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17세기 후반의 『소현성록』과 18세기초의 『완월회맹연』 같은 작품들이다. 최근에 제출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편소설들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다.⁵⁾

이들 논의의 중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작자미상이 많은 장편소설들의 여성작가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 내부의 다양한 서사적 요소들에 대한 섬세한 분석을 토대로 논의되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다른 하나는 장편의 고전소설들을 여성적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았을 때 드러나는 새로운 소설사적 의미들이다. 물론 여기에는 가부장제의 강화·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삶의 복잡다단한 변화상들을 포착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 글 역시 위의 두 논의의 연장선 위에 있다. 특히 여기서는 장편소

5) 박영희, 「『소현성록』연작 연구」(이화여대박사논문, 1994);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고소설학회, 1998); 정창권,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5(고소설학회, 1998); 정병설, 「『완월회맹연』연구」(서울대박사논문, 1997.8);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 21(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정병설, 「『계축일기』 작가문제와 여성소설적 성격」(한국고전문학회 197차 학술발표회 요지, 1998.12).

설 『소현성록』 속에 가장 큰 비중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를 논의하려 한다.⁶⁾ 『소현성록』 내부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당대적 현실을 소설속 여성인물들의 분석을 통해서 고찰한다면, 작가문체나 소설사적 위상을 새롭게 살펴봄과 동시에 17세기 장편소설의 다양한 출현 동인을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편소설의 전반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세기 후반은 가부장제가 제도적·관습적으로 강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제도적으로는 가부장제의 다양한 질서들이 정비되어 가는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생활사의 측면에서는 가부장제가 정착되는 데서 많은 저항들을 겪었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소현성록』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공간에서 창작·향유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이 문제적인 것은 문벌 즉 가문주의 사회 속에서 이러한 질서에 편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삶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작품의 표면에는孝의 실천을 가장 중요한 작품의 지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소설내에서는 여성들의 삶에 관심의 초점이 두어져 있다. 즉 여자들의 생활과 의식, 여성문화에 대해 이 작품이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 속의 여성들이 사대부 남성작가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옥소집(玉所集)』에 권섭의 모친 용인이씨(1652~1712)가 『소현성록』을 손수 베껴 읽었다는 기록을 볼 때도,⁷⁾ 이 작품이 여성들에게 인기리에 읽히지면서 필사과정에서 어떤 방식으

6) 『소현성록』은 『소현성록』과 『소씨삼대록』 연작으로 된 전15책의 장편소설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앞의 4책에 해당하는 『소현성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전편인 『소현성록』만으로도 이미 한 편의 완전한 소설로서 볼 수 있는 데다가, 후편인 『소씨삼대록』이 『소현성록』과 작가가 다르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7) 『玉所集』雜著 四, 「先妣手寫冊子分排記」. “先妣贈貞夫人龍仁李氏 手寫冊子中蘇賢聖錄大小說十五冊 付長孫祚應 藏于家廟內.”

로든 필사자인 여성들의 손길이 많이 갔을 가능성도 많다.

적어도 이 작품의 여성들은 주인공 남성의 가문 내부로 편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구운몽』이나 『사씨남정기』를 보면, 등장하는 여성들이 주인공 양소유나 유연수의 가문 내부로 편입해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온다. 『사씨남정기』에서는 현숙한 사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러한 여성들의 삶을 권선징악적으로 판단케 한다. 이는 다분히 문벌유지 및 확대를 이상적 가치로 여기는 남성적 시각이 배후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 속에서 물론 악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어되지 못한 인간의 욕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쁜 정치적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선과 악의 갈등은 모든 인간적 갈등의 상징이며 원형이라 할 수 있고, 또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볼 때 결핍의 한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⁸⁾ 그러나 『소현성록』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이 작품의 여성들은 뚜렷한 지향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작품 속에서 그녀들의 행위가 권선징악적으로 판단되고 있지도 않다. 다만 강고해지는 가부장제하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 했던 당대 여성들의 일상적 생활세계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줄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소현성록』에서 가부장제 정착 과정의 험거운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읽어내면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각기 어떤 형상으로 구현되어 있는가. 이 작품의 여성들이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여성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문제삼는가. 또한 작품의 서사적 전개에서 여성들은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들의 주요한 주장과 욕망은 무엇인가 등을 살피려 한다. 이는 17세기 성리학적 가부장제의 억압적 현실 속에서 이를 뚫고 나가려는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문벌로 상징되는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여성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폐해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은 소설 속에 숨어 있어서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풍부하게 드러

8) 이남호, 「한국문학과 악(惡)-조선시대 소설에 나타난 악의 양상-」, 이문열·권영민·이남호 엮음,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민음사, 1995), p.111.

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이 작품의 여성작가적 면모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이 작품의 사회적 의미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소현성록』의 소설사적 위상과 규방여성들의 소설사적 역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엄정한 家權과 따뜻한 모성의 女家長 : 양부인

『소현성록』은 항상 여성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소설내의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전개되는 작품이다. 소현성의 어머니인 양부인은 이중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인물이다. 그녀가 거주하는 취성전은 소설내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빈번하게 해결의 장소로 등장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소설의 외형적 주인공인 소현성의 모이자 남편 소광의 죽음 이후 가문을 철저히 이끌어 나가는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회와 역사 현실 속에서 어머니의 사고와 행동이 형성된다는 점⁹⁾을 고려할 때, 양부인은 가장인 남편의 죽음 이후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과 함께 가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남성지배적 가족구조와 달리 소현성의 가문은 양부인이 가장이 되어 집안을 다스리고 자녀를 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남성가장의 가족내에서 수행되는 어머니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아들인 소현성의 등과(登科)·혼사(婚事)·환로(宦路) 등에서 어느 하나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 그녀는 어머니의 역할과

9) 사라 루딕은 미국 사회의 모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머니일 수행을 지배하는 주요 관심사를 자녀의 생명보존에 대한 관심,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는 관심 수용가능한 자녀로 키우려는 관심, 배려깊은 사랑의 능력 등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사라 루딕, 「제5장 어머니의 사고방식」,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한울아카데미, 1991).

함께 부재하는 부(父)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강력한 가권(家權)으로 내외를 다스리는 여가장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소현성이 7세가 되기 전에는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다가 7세가 되자 친히 글을 가르치거나, 둘째딸 교영이 유배갈 때 열녀전을 준다거나, 재취 문제로 갈등을 빚자 석과와 화씨를 엄정히 다스린다거나 하는 것 등은 양부인이 가장으로서 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처를 들이는 문제나 소현성의 성 문제 등에 대해서 양부인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들인 소씨나 윤씨 등이 1년에 8, 9개월을 친정에 와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딸까지도 철저하게 그의 영향권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이러한 힘 있는 여가장의 존재는 17세기 이전까지 출생순의 족보기제, 균분상속, 윤희봉사, 외손봉사, 남귀여가, 가학(家學) 등을 통해 남성과 분리되어 배제되지 않고 자라났던 여성들의 생활사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목이다.¹²⁾

정창권은 『완월회맹연』의 ‘서태부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가장을 탁월한 가족관리 능력을 통해 가문의 질서를 확립해간 존재로 보고, 이들의 특징을 “집안의 문제적 인물에 대해 축출이나 죽임이라는 극단적 권력을 행사하는 권위적인 남성 가장을 모방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가족애로 포용하거나 잘못을 깨우치도록 유도하는 인자함을 잃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¹³⁾ 이러한 분석은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작품을 읽어낸다는 측

10) 이러한 여가장이 아니더라도 슈퍼우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여성들의 모습은 다음의 자료를 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현대실학사, 1998).

11)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이 시기 여성들은 아직 출가외인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소현성록』 권2, p.19).

12)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것으로는 전혜성, 김현진 역, 『조선시대 여성의 역할과 업적』, 『한국사시민강좌』 15(일조각, 1994); 한숙희, 「양반사회와 여성의 지위」, 『한국사시민강좌』 15(일조각, 1994) 등이 있다.

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자칫 여성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지나쳐 남성과 여성을 대립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¹⁴⁾

『완월회맹연』의 ‘서태부인’과 『소현성록』의 양부인을 비교해 보더라도 여가장의 문제가 그리 단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양부인은 서태부인과 달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죽임이나 축출의 극단적 방법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문의 질서 확립 자체를 가장 우월한 가치로 여기고 이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벌도 감행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여가장과 남성가장이 그리 다를 것도 없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을 좀더 섬세하게 읽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물들의 표면적 행위 그 자체보다도 행위 전후에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소설의 전반부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대두되었던 교영의 실절과 관련하여 양부인이 이를 다스려 나가는 태도를 살펴보자.

“네 타향의 덕거하나 몸을 조히호야 도라올 거시어늘 문득 실절호야 죽은 아비와 사랏는 어찌게 육이 미치며 조선의 불행을 갖치니 엇지 차마 살외두리오 친가의 불초네오 구가의 더러운 거집이 되어 텃지간 죄인니 당당이 죽엄죽흥거늘 금일 즈모의 정을 굶쳐 혼그릇 독주를 주느니 쾌히 먹으라” 교영이 고왈, “소녀 비록 그릇호여시나 모친은 잔명을 용사호소서.” 부인이 돌왈, “네 스스로 네몸을 생각하면 죽으미 타인의 지촉을 기다리지 아니려든 어느 면목으로 용사 두지 나노 내의 즈식은 이러티 아니리니 날드려 어미라 일코지 말나 네 비록 덕소의셔 약호므로 절을 일히시나 도라오매 거절호미 올커늘 문득 서러 만나물

13) 정창권,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5(고소설학회, 1998), p.249~255.

14) 정출현은 정창권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이러한 대립적 시각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출현, 『17세기 국문소설과 한문소설의 대비적 위상』, 『한국문학에 있어서 국문문학과 한문문학의 관련양상』(한국고전문학회·한문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발표요지, 1998.6).

언약하야 거뉘를 ㄹ러쳐 예이에 츠자 와시니 이는 날을 토목궤치 너기미라 내 비록 일너지나 츠식은 처티하리니 이런 더러운 거슬 가뉘의 두리오 네 비록 구 천의 가나 니성과 네 부친을 어느 ㄴ츠로 불다.”¹⁵⁾

석파를 통해 교영의 실절사건을 알게 된 양부인이 결국 교영에게 독주를 내려 죽이려는 대목이다. 표면적으로는 훼손로 인해 자신의 몸을 더럽힌 딸을 처벌하는 엄정한 어머니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양부인의 분노는 훼손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부인은 딸의 유배지에서의 훼손도 문제지만, 그 남자를 집안까지 불러들임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위기를 가져온 데 대해 더욱 분노를 느꼈던 것이다. 또한 양부인이 어려서부터 교영에게 자상하게 여도(女道)를 가르치고 유배갈 때 열녀전을 주는 내용을 본다면, 실절한 딸에 대한 양부인의 엄정한 처벌은 가문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자신의 사랑과 교육을 배반한 딸에 대한 배신감이 함께 증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영을 안장하고 돌아오는 소현성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양부인의 눈물어린 하소연¹⁶⁾의 장면에서, ‘죽임’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의 이면에는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여가장으로서의 고민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은 어떻게든 자식의 생명을 지켜주고픈 어머니의 심정과 가문의 명예와 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고민이 심각하게 충돌하면서 그 비애가 매우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의 내용에서 며느리들이 남편과 갈등을 일으킬 때, 그것이 비윤리적이고 심각할 정도의 행동이 아닌 한 웬만한 것은 상처를 주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에서도 양부인의 치가(治家)가 남성 가장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부인의 여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작품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소현성이 4인의 창기와 어울리는 것을 준엄하게 꾸짖음으로써 아

15) 『소현성록』 권1, pp.35~37.

16) 『소현성록』 권1, p.45.

들을 경계시킨다든가,¹⁷⁾ 재취문제로 갈등을 빚은 석파와 화씨를 모두 꾸짖는다든가, 갈등하는 아들을 설득한다든가¹⁸⁾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양부인은 일반적으로 상대의 복종을 강요한다든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상대를 설득하고 달래는 모습을 함께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여씨가 개용단을 먹고 석씨로 변하여 문제를 일으켜서 소현성이 석부인을 죄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자, 되려 아들의 성급함을 나무라며 임신한 석씨를 감싸는 내용이 있다. 이 경우에는 명분이나 윤리적 실천보다 우선 배속의 생명을 우선 소중히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성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양부인의 이러한 여가장으로서의 역할은 결과적으로는 가문 유지에 크게 기여했지만, 이는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같은 소설 속의 여성들의 역할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작품들에서도 여성이 상당한 비중으로 작품 속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소설 속 여성들의 가문내의 편입 또는 배제는 철저하게 권선징악적인 잣대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여성들은 철저하게 사대부 남성들의 관념 속에서 형상화된 인물들인 것이다. 이와 달리 양부인은 가문주의 사회질서의 정착과정 속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거기에 철저하게 얽매어 행동하지는 않는다. 엄정한 가권(家權)을 가지고 집안을 다스리면서도 열린 모성으로 며느리들을 감싸안는 따뜻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소현성록』은 가문소설과는 현격하게 구별되는 작품이다.

이러한 여가장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소설에 등장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여가장들은 배우자인 남성가장의 상실후 이를 계승한 아들을 후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들은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식의 혼사와 임신양명을 통한 가문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측면 외에, 부부애나 형제애를 강조하고 노주(奴主) 사이의 관계에서도

17) 『소현성록』 권1, p.41.

18) 『소현성록』 권2, p.3~4.

지배보다는 설득의 방법을 많이 보여준다. 이는 여성 특유의 관계지향적인 성향과 관계가 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할 것은 여성인물들이 표면적으로 취하는 행동양식의 여하보다도, 그녀들의 행위나 생각 속에 배어 있는 여성들의 섬세한 정감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강력한 가장의 권한을 대항하는 모습 뒤에서 여가장이 보여주는 눈물과 갈등, 그 따뜻한 정서는 바로 가문주의 사회와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3. 여권수호와 욕망의 여성주체¹⁹⁾ : 소현성의 아내들(화, 석, 여부인)

『소현성록』에서 주요 갈등 요소로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작품의 긴장을 유발하는 내용은 바로 소현성과 그 아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다. 가부장제 질서의 정착과정 속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변화일 터인데, 이 소설에서는 특히 자신의 지위를 찾아나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매우 흥미롭게 전개된다.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소현성록』에서 읽을 만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작품이 비록 표제를 『소현성록』이라 하여 소현성이라는 남성 주인공의 치적과 덕행이 중심이 된다고 말하지만,²⁰⁾ 실제로 작품 내부에서 소현성의 영웅적인 행위나 치적담은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내에서 가족들과 얽혀 지내면서 빚어내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모습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소현성은 모두 3명의 부인을 맞이한다. 먼저 화부인을 살

19) 여기서 말하는 '여성주체'는 보편적인 여성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지향과 가치 및 목표를 가지고 독립적인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는 여성인물들을 가리킨다.

20) 국문 장편소설의 독법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고전소설의 대다수가 충·효·열 등 윤리적 덕목의 실천을 표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 내부에는 민의 목소리나 여성의 목소리 등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보자. 화부인은 평장사 화현의 장녀로 이름은 주은이며, 소현성의 본부인이다. 주로 녹운당에 거주한다. 소설 속에서 그녀의 형상은 조강지처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처(正妻)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1) 화씨 천성이 영민하나 성미 조금요강하고 또 사랑 듯히 너기물 태산듯
티 호야 은경이 그죽호야 병치이 다르고 친이호미 극진호디 사랑이 석석호야
일죽 소정을 니르는 일이 업고 공경호나 너모 인듯호기로 투기호는 일 심이
***니²¹⁾

(2) 화씨 미우의 근심이 좁겨 호호는 빗치 그득호더니 석파를 보고 빵눅을
드리워 굴오디 “첩이 셔모를 호호더니 금일 황상을 통호호느니 만승지주로 치
국이나 흘 거서어늘 유난호 흥실을 신하의게 느리오니 불구의 죽으리라.”²²⁾

(1)은 석소저를 재취 들이려는 과정에서 화씨의 성품과 남편에 대한 태도를 서술한 내용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그녀가 선천적으로 투기가 심한 여인이라기보다는 남편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평소에 홀대 당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배신을 당하면서 격렬한 그녀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2)는 황제의 사혼(賜婚)에 의해 삼첩(三妾)로 여씨를 맞이하게 되자 화씨가 황제를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이다. 둘 모두 남편이 새로 부인을 맞아 들이는 과정 속에서 화씨가 표출하는 분노의 모습들인데,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특히 화씨는 석파의 주선으로 재취가 추진되자 석파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섬뜩한 경고를 하기도 하고²³⁾ 욕설과 몸부림을 하다 분을 사이지 못해 혼절하여 앓아 눕고,²⁴⁾ 심지어는 소경의 문병조차 외면하며 냉대한다.²⁵⁾ 또한

21) 『소현성록』 권1, p.89.

22) 『소현성록』 권2, p.89.

23) 『소현성록』 권1, p.90.

24) 『소현성록』 권2, p.5.

25) 『소현성록』 권2, p.5-6.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기도 한다.²⁶⁾

그러나 이러한 화부인의 모습에 대해서 쉽사리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성격적 결함을 지적하면서 문제적 인물로 평가할 수는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목 이외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은 지극히 평정(平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우리는 화부인을 통해 여성들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런 경험이 바로 아내로서의 지위를 위협받는 것임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설 속에서 화부인의 비판적인 생각과 언어가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에서, 여성억압의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매우 문제적임을 느끼게까지 한다.

석부인은 석파의 일가인 석현의 2녀로 이름은 석명혜, 자는 숙난이다. 소현성의 제2부인으로 13세에 시집을 온다. 주로 벽운당에 거주한다. 그녀는 처음에는 잠자리 문제로 소현성과 갈등을 빚는다. 석파가 그녀의 팔에 앵혈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혼인 후 부부관계가 없었음을 알고 소현성에게 이를 문제삼게 되면서 갈등이 야기된다. 이 대목은 아내의 입장에서 성적 소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이다. 성에 있어서의 절제와 금욕이 사대부 남성에게는 긍정적인 덕목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성의 욕망과 배치된 채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또다른 여성억압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이 이러한 여성의 욕망을 배제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이 밖에도 석부인은 남편에 대한 불만을 품고 마음대로 친정으로 가서 지내고²⁷⁾ 여부인의 계약으로 인한 오해로 결국은 이혼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²⁸⁾ 물론 나중에 다시 양부인에게 잘못을 청죄하고 복귀하지만, 그의 목은 원한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다. 화해를 시도하는 남편을 거부하고, 빈정대며 비난하기까지 한다. 다음의 내용을 보자.

26) 『소현성록』 권2, p.26~27.

27) 『소현성록』 권2, p.74.

28) 『소현성록』 권3, p.30.

(3) 석시 노족이 고왈 군지 금일 도라오시매 외당의 머므러 사름의게 급거
흐를 뵈지 말 거시오 그러타 아닐진대 녹운당이 이시니 엇지 첩의 곳의 묻져
오시미 가호리오 청컨대 군즈는 생각호샤 단목호기를 힘호쇼셔.²⁹⁾

(4) 엇던 숙네 드러올지 모르거니와 두리건대 혼셔를 불지르고 무함구박호
야 출화보기 쉬울가 두리노라.³⁰⁾

(3)은 자신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남편에게 외당으로 가든지 화부
인에게 가든지 하라면서 은근히 거절하는 석부인의 언술이다. (4)는 조
금더 과격할 발언으로서 어떤 숙녀가 들어오든지 이혼당하고 쫓겨나기
십상일 거라는 악담을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대목만을 본다면 석부인도 정처(正妻)는 아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작품 전체를 보면 3부인 중 가장 뛰어난 문학적 재
질³¹⁾과 덕행을 겸비한 여성으로 형상되어 있다. 그렇다면 석부인의 경우
를 통해서 정처의 덕목을 구비한 여성에게도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은 바
로 성적 소외와 순결성에 대한 의심임을 알 수 있다.

여부인은 추밀사 여운의 2녀로서 소현성의 제3부인으로 들어오는데,
두 부인의 경우와는 달리 사혼의 형태로 들어온다.³²⁾ 주로 청운당에 거

29) 『소현성록』 권4, p.9.

30) 『소현성록』 권4, pp.14~18.

31) 소경이 석소저의 글에 감탄한다거나(『소현성록』 권1, p.82~83), 석파가 석
소저의 시전을 벽에 붙인 것을 문예능력이 뛰어난 소월영이 눈여겨 본다거나
(『소현성록』 권2, p.17) 하는 대목에서 석부인의 문학적 능력이 예사롭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이를 더욱 확증해 준다.

“또 소운 낭민의 글과 화석 이인의 작시호 거시 잇거늘 혼번 보고 소시의 통
달호 의시며 윤시의 공교경슈호 문테와 석시의 싸여난 문지며 화시의 절묘호
지죄 각각 득의호야 귀신을 올니는 묘경이나 진짓 덕슈는 소시윤시라 차등티
아니고 화시 또호 안항은 뵈배오 특출호 거슨 석부인 글이라.”(『소현성록』 권
4, p.102~103).

32) 심재숙은 녹혼(勒婚)삽화는 천자가 상대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자신의 지친
(至親)-공주나 혹은 공주의 딸을 혼인시키려 함으로써 벌어지는 이야기로 규정

주한다. 이 작품에서 3부인 중 유일하게 악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소현성록』 연작에 나오는 사혼은 거의 가문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이 주목된다.³³⁾ 이는 아마도 사혼녀들의 경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가능케 해주는 권세 있는 가문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여부인의 사혼과정을 보면, 먼저 추밀사 여운이 현실인 후궁 여귀비를 통해 천자로 하여금 혼인을 중매하도록 하고, 소현성은 황명을 어길 수 없어 여씨와 혼인한다. 혼인 후 여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 부인(화씨와 석씨)을 모해하여 쫓아냄으로써 소현성의 사랑과 가권을 독차지하려 한다. 여씨는 석씨와 화씨의 방을 엿보기도 하고³⁴⁾ 필전과 흥참을 위조하거나 양부인의 생일연에 음식물에 독을 넣어서 석부인을 모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개용단을 먹고 석씨 또는 화씨의 모습으로 화하여 소현성을 현혹시켜 두 부인을 모함하기도 한다.³⁵⁾ 특히 남편에게 거침없이 성적 요구를 하는 등 여씨 부인의 욕망은 상당 부분 애정문제와 긴밀히 연관된다. 또한 이러한 여씨부인의 행동은 애정의 쟁취뿐 아니라 가권의 쟁취와도 연결되고 있다.³⁶⁾ 중국에는 석씨는 친정으로 쫓겨나고 화씨는 소현성이 멀리하게 되어 여씨의 뜻이 이루어지는 듯하였으나, 소현성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고서 여씨를 친정으로 쫓아낸다. 화부인이나 석부인의 경우와는 달리 여부인은 소씨 가문으로부터의 축출이라는 징벌을 당한다. 그녀가 저지른 행악에 비하면 이러한 징벌은 너

하고, 그 초기형태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소현성록』 『구운몽』 『옥린몽』을 들고 있다(심재숙, 「고전소설에 나타난 늙은 삼화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석현정규북박사고회기념논총(국학자료원, 1996), pp.873~875).

33) 심재숙, 앞의 논문, p.877~882.

34) 『소현성록』 권2, p.91.

35) 『소현성록』 권3, p.16~17.

36) 이때 녀시 석시를 해하나 상서의 종격이 제게 더오는 일이 업고 괴식이 네 깃듯니 녀시 또 생각하디 화시를 므자 업시하야 그 가권을 아술 거시라(『소현성록』 권3, p.36~39).

무 가벼운 것이지만, 그녀의 배경을 본다면 이러한 징벌을 감행하는 소
씨가문 또한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사혼녀인 여부인의 경우를 통해서 권
력과 성에 대한 여성의 욕망은 그 개인의 성향보다는 개인이 속한 가문
또는 집단의 성향과 일정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세 부인들은 남편 소현성과 작품 내부에서 많은 갈등을 빚는
데,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부부갈등의 내용에 상당한 분량이 할애되어
있다. 특히 그녀들은 이러한 갈등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노는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분
노는 여성들의 잠재된 역량의 표출이자, 주체적으로 여권을 수호하기 위
한 가장 중요한 저항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 부인은 모두 당장 자신들의 권리나 지위가 위협당하는 상
황에서는 그 상대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분노의 화살을 겨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분노는 침묵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지경에서
발산되는 정당성의 표현이다.³⁷⁾ 즉 분노는 이성이나 논리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에서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저
항인 것이다. 그녀들에게 정숙함이나 자애로움 등의 흔히 말하는 전통적
여성상을 기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
듯이 화씨와 석씨의 경우는 분노 이전이나 이후의 상황에서 자애로운
모성성과 평정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여성들을 기질적
으로 대가 센 인물로 몰아붙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듯하다. 오히
려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정착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이를 만만히 받아들
이지 않았던 현실을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볼 때, 부인들이 모두 청죄를 통해 결국에는 남편
이나 시가에 굴복한다 할지라도 이는 형식에 지나지 않을 뿐, 근본적으
로는 부부관계에서 성적 권리나 경제권 등 주체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37)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여성들의 분노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파악한 연구로는
미리암 그린스펜 지음, 고석주 옮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힘』(또 하나의 문
화, 1995)가 있다.

지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작품 말미에 화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바로 이러한 부인들의 소망과 노력이 집결되어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이 작품을 왜 여성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도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매우 중요한 대목이므로 전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첩이 비록 무상하나 어려서부터 성현의 글을 넓어 잠간 네의를 아나니 그옥이 성각건대 나라희 황후와 황태 존흐미 혼가지오 집의 가장과 가뎁 등흐미 혼가지니 군지 수신제가티국평탄하지본이라 하나 즈고로 남지 국스를 다스리면 집일을 다 보미 어려운 고로 승상이 대신이 되여 묘당스를 슬퍼프로써 곁을티 못흐여 니홍을 맞더 니의를 다스리게 하니 홍은 외인이라 갓가이 절친이 아니오 높히 지긔 아니니 비록 인물이 근실타 하나 엇지 부등 세세흔 일을 알게 흐리오 홍이 등권을 입흐매 녀쳐 서리 아유흐야 가뎁 조고만 이를 몬져 홍의게 취품흔 후 아등의 말을 조츠니 첩이 그옥이 붓그러 흐기는 첩의 인시 미세흐야 상공의 가모소임을 능히 못흐며 니조흐는 공이 업서 흐 하관으로 가스를 맞기 나가 우려흐더니 금일 완경흐른 승상의 업기를 기드려 놀라흐미 아니라 존당이 평안흐야 여러 즈녀를 희롱흐시거늘 한가흔 썰를 타 소윤석 삼부인으로 더부러 후원을 보며 또 산수 성흐를 보야 명년의 즈통을 티고져 흐미오 그실은 완경지심이 아니오니 홍을 잡아미른 무례흔 말을 아니흐야쥬므로옥하니 상공이 오히려 첩을 모욕흐미 듯지 못흐엿거늘 제 가신으로서 어즈러운 말을 흐므로 일시분이 니러나매 춤지 못하고 또흔 승상피도 제가의 해로오므로 승상이 밧긔 겨시면 내 스이의셔 호령을 못흐려니와 상공이 죠당의 드러 도라올 조만을 명티 못흐여시니 집의 가뎁 업다 흐야 노복과 홍이 무례커늘 가피 일절을 고집히 직희여 틀혀더가는 위의를 아니 붓들미 즈고로 첩이 비록 외람흐고 당돌흐나 홍을 미고 존고피 주흐야 다스려 비록 승상이 나가시나 감히 범스를 무례히 못하고 집의 규정흐는 괴탄흐며 알게코져 흐미오 즈행흐는 넘나미 아니러니 ①이제 홍을 안치고 내당 시녀를 잡아내여 티니 이는 시녀를 티미 아니라 첩을 다스리미라 첩이 감히 낭인을 원망티 못흐나 다만 일로 보건대 부부지의 삼강과 오류의 드지 말고 부등 하관을 부부디에 녀흐미 가허거늘 네 성현이 엇지 그릇흐야 등흔 하관은 싸지고 경흔 부뷔 드렸는고 고이히 너기며 또흔 부부를 니르지 말

고 첩으로써 봉우를 취하여도 첩은 상공을 아라지 십이년이오 흥은 다스히라 선후를 또한 분변티 아니시니 흥을 위하 정성은 가히 지극거니와 또한 첩에게는 박절하도다 각각 집의 잇고져 하시니 녀즈의 삼종지의 등하니 상공은 삼강오륜을 니저버리시나 첩은 녀필종뵈며 원부모형테를 직회하니 상공이 버릴진대 복을 품고 의지하야 눈괴삼종을 오롯과 하니 임의로 처티하라 각 당의 처와 너무로 비기시니 감히 발명을 못하니 다만 무측던은 엇던 사름이며 녀후는 또 엇던 거집고 이글을 보매 모골이 송연하니 유유창턴이 내 뜻을 아라 밧기사름은 모라리니 첩이 임의 존문의 후환이 될셔면 불기 알고 처티 아니미 한테의 일과 굿디 아나 강호 가신과 노복이 업스니 내 또 업서야 가흔지라 썰니 제스하야 후취예인 데예변과 골육의 죽기를 데방하고 뉘웃지 말플 진정으로 바라노라 엇더라 ②승상이 보기를 못하고 노식이프러더 다시오 보며 언에 격절하고 상패하야 강개하미 극흔지라 해건대 화부인의 녀냥으로는 이런 말은못홀지라 보고 다시 보매 이사름에게 지난 총명이라 문득 씨드라 함소왈 이 반드시 저저의 가르치신 배로다 하고 으즈드려 문왈 네 모친이 이 글을 뜯 제 뉘 잇디노 으지디왈 아히 처업은 그릇 조모피 드리니 윤부인이 넓고 일시의 웃터니 도로 모친피 보내시고 소부인이 와서 7르쳐 쓰시더이다.³⁸⁾

위의 편지를 쓰게 된 사건의 전말을 대략 요약하면, 소현성이 집사인 이흥에게 집안 대소사의 운영을 맡긴 데 대해 평소 아내들의 불만이 매우 컸다. 그러던 터에 화씨가 이흥에게 후원의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고, 이흥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분개한 화씨가 이흥을 잡아 매달았고,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본 소현성이 화씨의 시비를 잡아다 때리고 화씨에게 훈계하는 편지를 보냈다. 위의 편지는 이흥과의 갈등 사건³⁹⁾을 통해서 가문 내에서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화씨가 소현성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①을 보면, 삼강오륜의 항목을 거론하며 남편 소현성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너무나 논리적인 부인의 반박은 소

38) 『소현성록』 권4, pp.116~119.

39) 『소현성록』 권4, pp.104~105.

현성으로 하여금 화를 풀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②의 내용이다. 내용인즉슨 편지가 양부인에게 잘못 전달되어 집안의 모든 여성들이 알게 되고 나서 다시 소씨(월영)의 가르침에 의해 편지가 개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문건은 화씨 개인 작이기보다는 아내의 위치에 있는 집안 여성들의 공동작의 성격을 띤다. 물론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이러한 집단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편지가 잘못 전달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는 다분히 여성들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려는 작자의 의도가 담긴 소설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들은 서로간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위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 편지가 작품의 가장 말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은 『소현성록』이 여권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이홍과 부인들의 갈등은 가사권(경제권을 포함하여)을 둘러싼 사건으로서, 가부장제의 정착과정 속에서 가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여성들의 지위와 권리가 점차 배제되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은 세 부인들의 저항에 대한 징벌의 양상이다. 화씨의 경우 그 유모를 끌어내 대신 매를 치는 정도이고, 여씨의 경우 친정으로 쫓아내고 이혼을 하는 것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특히 여씨의 경우 악행에 대한 처벌로서는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는 양부인과 소현성의 관대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듯하다.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석씨나 여씨가 축출당한 이후 그녀들의 친정집안의 대응 태도이다. 석씨의 아버지 석장군이 칼을 들고 소경을 찾아와 위협한다거나⁴⁰⁾ 여씨 부모의 강력한 저항 태도이다. 특히 여운은 자기딸을 내친 소현성을 죽이려고 전쟁터인 강주 안찰사로

40) 『소현성록』 권3, p.27.

그를 보내기도 한다.⁴¹⁾ 그렇다면 결국 그녀들이 그토록 마음껏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바로 권문세가인 친정의 힘⁴²⁾이 밀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윤씨 손을 썰티고 벽을 향하야 누어왈, “내의 비라는 배 으지 어렸고 엄친이 아니 겨서 삼중의탁이 그더찌 잇더니 그더 일쥬의 은인 박하야 지어헌어스드려 내의 혼단을 포럼하고 지취를 니르니 취홀지라도 내 아쳐홀 배 업거늘 엇지 구 터여 내의 혼단을 니른 후 지취하리오 그더 임의 부부의 의절하야 외인을 더하야 규합의 부덕을 니르니 이 무슴 경이리오 츠고로 내 부부덕업과 세상스름 굿 처 단발위승하고 안정흔 도관을 어더 머므러 부모 제스나 일우며 양부인과 소 참정을 의지하야 종신히려 흐느니 그더는 날로써 의려티 말고 숙녀를 어더 동 낙하라.”⁴³⁾

위의 인용은 소현성과 의남매를 맺은 누이 윤씨가 남편 유생의 홀대와 취첩문제를 겪게 되자 이혼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윤씨 역시 식음을 전 폐하다가 혼절하거나, 피를 토하는 절규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한다. 결국은 소현성의 중재로 두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된다. 윤씨는 이러한 극단적인 저항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입지를 좀더 공고히 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윤씨의 적극적인 저항 역시 그 저변에는 친정인 소현성 가문이 든든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현성록』의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예속되지 않았던 당대적 삶의 흔적을 읽어낼 수 있다. 소현성이 부인들에게 늘 소홀한 모

41) 『소현성록』 권3, p.50, p.75.

42) 국문 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의 존재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친당의 기반을 중요하게 언급한 논의로는 지연숙,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 연구』 (고려대석사논문, 1997.8)가 있다.

43) 『소현성록』 권4, p.33.

습으로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들이 쉽게 버림받지 않았던 이유는, 여성들 각 개인이 가지는 주체적 의지와 더불어 친정이라는 사회적 기반이 있었던 탓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작품 후반부에서 아내와 화해를 도모하려는 소현성이 아내의 부재로 인해 고독과 공허함을 느끼는 모습은 더욱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부부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주체적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다음은 시누이-올케 관계, 고부관계, 처 처관계 등 여성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여성들이 보여주는 태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성들이 자매애를 바탕으로 그녀들만의 또다른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지적한 연구가 있다.⁴⁴⁾ 이 분석은 『소현성록』 여성들의 모습살이 속에 나타난 연민의식과 생존의식에 바탕하여 해석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처처갈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필자도 여기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좀더 부연할 것은 이러한 여성들간의 연대와 결속이 어떤 힘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백화헌에서 여성들끼리 벌이는 술자리의 모습이다.⁴⁵⁾ 여기서 소현성의 누이인 소씨와 윤씨, 소현성의 서모(庶母)인 이파와 석파, 그리고 부인인 화씨와 석씨 등은 함께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자신들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이 소설에서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여성들만의 술자리가 그 동안의 자잘한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여성들간에 연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대화에서 결혼생활하는 아내들의 입장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은, 그녀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여성의 지위와 권리 즉 여권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근대적 개념의 아내권⁴⁶⁾

44) 정창권, 앞의 논문, p.311.

45) “일일은 소시윤시로 디브러 빅화헌의 가니 상세 마출 나가고 서헌이 고요흐니 낭인이 화류를 귀경흐며 인흐야 시녀로 니석이파와 화석이부인을 청흐니 소인이 모다 와 소시 좌우로 흐야금 송영아래 농문석을 비철흐고 버러안자 주과를 나오니” 『소현성록』 권2, pp.65~71.

과 유사하다. 부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서로간에 철저히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인간적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술자리뿐 아니라 여성들끼리 모이는 모습은 이 소설에서 여러 번 나타난다.⁴⁷⁾ 또한 소현성 집안의 딸들이 그 시누이들을 칭찬하고 추켜올리는 대목에 이르면 아내의 권리가 상당히 존중되는 집안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⁴⁸⁾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의 억압 속에서 이처럼 여성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두둔해 주는 편이 있다는 것만큼 큰 힘은 없다. 그들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의지는 바로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⁴⁹⁾

『소현성록』에 나오는 아내들은 인격적으로 완전한 인물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 이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비하적인 시선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의 생생한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여성적인 경험과 시각이 풍부하게 반영된 장편소설들의 주요한 특징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46) '아내권'은 인류학자 낸시 에이벌만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으로, 그녀는 80년대 50대 한국여성들의 생애사를 연구하면서 이를 언급하였다. 즉 자본주의적 발전이 핵가족화를 불러옴으로써 가족내 여성 권한의 바탕이 모권에서 아내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여성들이 큰 공헌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를 제치고 아내로서의 주체의식을 확고하게 가지게 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말하는 '아내권'은 가부장제 질서의 정착과정 속에서 강화되는 가장의 권한으로 인해, 점점 그 몫이 줄어들게 된 아내들의 지위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조혜정,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또 하나의문화, 1998), p.150).

47) "화부인이 여시 온 후는 석소저의 현철흠과 공순흠를 씨드라 화목허더니 일월이 뉴매허야 하늬월망시 되니 거당의 오식부용이 성허야 향기롤 드토니 화시시녀로 더브러 부용당의 가 두 부인을 청허니"(『소현성록』 권2, p.96~98).

48) 『소현성록』 권4, p.46~47.

49) 모임에서 이뤄지는 여성들의 담화는 곧 그녀들에게 상당한 의식의 계발(consciousness-rising)을 가져온다는 것이 페미니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4. 역할확보를 통한 자기 정체성 찾기 : 석파

『소현성록』에는 양부인과 세 부인 같은 주요 여성인물들 외에 사건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성인물이 있다. 그 가운데 독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역할로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석파이다. 그녀는 소광의 첩으로서 소현성에게는 서모가 된다. 주로 일회당에 거주한다. 석파는 중흥무진 기문내의 대소사에 한결같이 관여하면서 집안 내의 모든 인물과 격의 없이 만난다. 특히 이 소설에서 그녀의 역할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들이 그녀로 인해 유발되기도 하고, 또한 결국엔 많은 문제들이 그녀의 지혜와 행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분쟁의 야기자이면서 동시에 분쟁의 중재자인 것이다. 작품 내에서 석파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도 이러한 인물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앞서 거론한 교영의 실절 사건에서도 석파는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한다. 소현성과 유장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시비 춘영을 통해서 석파는 교영의 실절사건을 알게 된다. 그리고 춘영과 더불어 탄식하던 가운데 양부인에게 이를 들키게 되고, 결국 양부인은 소현성을 추궁하여 사실을 알아낸다. 비극적 사건의 발단이 석파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석파의 인물됨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비록 분쟁은 아니지만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기에, 그녀는 교영의 죽음을 말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석파는 양부인이 아무리 엄격하게 하더라도 너마저 그래서 안된다며 단호히 꾸짖기도 한다. 또한 교영이 죽은 뒤에도 소현성에게 교영을 선산에 안장하도록 설득한다.⁵⁰⁾ 자신의 뜻대로 교영이 선산에 묻히지는 못했지만,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50) 『소현성록』 권1, p.34~38.

이 밖에도 석파는 소현성의 혼사문제에 유별나게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친정가문인 석참정의 딸 석씨를 부인으로 맞도록 소경을 설득하고, 그녀의 시전을 보여주며 뛰어난 문예능력을 확인시킨다. 석소저와 소현성의 혼사를 위한 그녀의 노력은 매우 집요한 양상을 보여준다.⁵¹⁾ 또한 의남매를 맺은 윤씨를 용모나 심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들어 며느리로 맞도록 양부인을 설득한다든가 하는 모습이 그것이다.⁵²⁾

이뿐만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 가장 주목되는 석파의 역할은 소현성의 부부관계와 관련하여서이다. 그녀는 소현성과 화씨의 잠자리를 엿보거나, 소현성과 석소저의 잠자리를 재촉함으로써 부부간의 성적 갈등문제까지 해결하려 한다.⁵³⁾ 여기서 그녀는 소현성의 금욕적인 생활을 끊임없이 문제삼기도 한다. 또한 그녀는 소현성과 부인들간에 이혼 위기가 닥칠 때마다 직접 중재자로 나서서 이의 수습을 위해 노력한다. 친정집으로 가 버린 석부인을 데려오도록 소현성을 설득하는가 하면, 석부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소현성이 석부인에게 가도록 유도하기도 한다.⁵⁴⁾ 석파의 이러한 중재자적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백화헌 술자리에서 일일이 부인들의 생각을 묻고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는 대목이다.⁵⁵⁾

그렇다면 이처럼 소현성의 혼사문제나 부부관계의 갈등 해소에 석파가 자신의 노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녀의 가문내의 위

51) 석파는 자신의 친정집안의 딸인 석소저를 재취로 맞아들이도록 소현성을 설득한다(권1, p.52). 그러나 양부인이나 소현성 모두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방법을 취한다. 즉 석파는 석소저의 시전을 얻어와서는 소현성이 이를 보고 감탄케 하고(권1, pp.77~83), 또한 이를 벽에다 붙여서 집안내에서 가장 문예적 안목이 뛰어난 소현성의 누이 소월영이 보도록 한다(권2, p.17). 이러한 석파의 노력은 결국 소현성과 석소저의 혼사를 성립시키게 된다(권2, p.25). 이처럼 석부인과 소현성의 혼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석파의 노력은 소설 속에서 매우 많이 나타난다.

52) 『소현성록』 권1, pp.65~66.

53) 『소현성록』 권1, p.70. / 『소현성록』 권2, p.56.

54) 『소현성록』 권3, p.31~34. / 『소현성록』 권4, p.5~6.

55) 『소현성록』 권2, p.65~71.

치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터이다. 다른 서모인 이파가 집안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는데, 석파는 양부인이나 소현성, 그리고 며느리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상당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처럼 가문내에서 비중 있는 존재로 각인되는 것은 단지 서모라는 위치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가문내에서 수행하는 역할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가장인 양부인이 내외의 대소사를 모두 관리하는 가운데 서모인 그녀의 존재 의미는 대단히 협소해져 갔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석파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립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특히 많은 저항에 부딪치면서도 가문의 후계자인 소현성의 혼사와 후사 문제에 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결국에는 이를 성취함으로써 가문 내에서의 그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져 간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석파는 항상 어떤 사건의 주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배후적 인물의 동장이 소설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좀더 따져져야 하겠지만, 『소현성록』만을 놓고 볼 때 석파는 다른 여성들의 성격을 이끌어내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기정체성을 찾아가는 인물로서 의미를 수 있다.

5. 맺음말

기왕의 연구에서 고전소설 속의 많은 여성들은 남성적 관점에 의해 해석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남성적 시각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허상 속에 갇힌 결과, 소설 속에 완전한 존재로 자리하는 여성들은 주인공 남성의 서사 전개 속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여를 하는 주변인물로서만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고전소설의 여성들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어떤 작품들 특히 국문 장편소설의 경우 소설 속의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종속되거나 부수적인 모습이 아닌 독립적인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녀들에겐 활동무대가 확보되어 있고, 주체적 활동의 의

지도 있다. 그녀들은 남성들의 계략과 투쟁 못지 않게 행동하기도 한다. 『소현성록』의 여성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다. 어쩌면 이 작품의 진정한 주역은 이 여성들의 몫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글은 ‘여성은 일방적 피해자’라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양질의 인간’이라는 선형적 전제를 두고 인물을 파악한 것이 아니다. 다만 가부장제의 정착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따름이다. 이 작품은 여성의 인간성과 여성 고유의 여성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정체성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당대 현실 속에서 이러한 여인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온화하고 사려깊은 성품과 용감하고 당당한 모습을 함께 지닌 여인들의 모습 말이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소현성록』을 통해 가부장제 정착과 강화 이전의 여성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소현성록』 여성들의 성격을 통해 그 소설사적 의미를 가늠해보자.

첫째, 우선 이 작품의 여성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폭력적 힘과 권위에 좀처럼 순응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인물들과 갈등과 화해, 저항과 타협을 거듭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다. 물론 그 방법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모습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또한 여성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종내에는 여성들 사이에 연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들의 형상은 여성들도 가부장제의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동조하거나 기여했지 않았는가 라는 주장에 대해서 충분한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성주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남성이 소설 속의 중심인물로 존재하고 대개가 그들의 활동무대인 다른 소설들에 비해, 이 작품에는 여성들의 활동 공간이 더 많으며⁵⁶⁾ 그들의 활동

56) 이 작품에는 각각의 여성들이 처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의 서사적 전개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양부인-취성전, 석파-일희당, 화부인-늑

양상이 더 많다. 또한 그녀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한다. 유창한 말솜씨와 수준 높은 문예능력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녀들은 또한 비굴한 사랑을 택하지 않으며, 성적인 면에서도 주체적이다. 그래서 선지 몰라도 이 작품의 여성들은 부부갈등, 고부갈등, 처처갈등 등의 여러 갈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거나 교화당하지 않고, 강하게 저항도 하고 때로는 화해와 타협을 도모하기도 하는 등 매우 개성적이고 주체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성적인 권리나 경제권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몫을 쉽게 내어놓지 않는다. 주체성이라는 것이 남성의 몫만은 아님을 『소현성록』의 여성들이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여성적 감수성의 문제로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섬세하고 사려깊은 감정 표현, 주변 인물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등 섬세한 정감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등장인물을 통해서든 서술자의 말을 통해서든 여성 비하의 언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상은 『소현성록』 여성들의 사회적 능력과 역할, 문화적 소양, 경제권과 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국문 장편소설에 나타난 이러한 여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가문의 유지와 확산을 주요한 가치로 다루는 이데올로기적 가문소설의 다른 편에서, 가부장제적 강화 및 정착과정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진지하게 그려지는 장편소설들도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소현성록』은 국문 장편소설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하여 주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앞서 세 가지로 이 작품 속 여성인물들의 성격을 설명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현재 가문소설이라는 범주하에 장편소설을 읽어내는 독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장편소설을 너무 가문소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가문의식에 긴박되어 그 밖의 다채로운 소설적 면모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운당, 석부인-벽운당, 여부인-청운당, 소월영-취운각 윤부인-혜운각 등이다.

18세기 이후 등장한 『완월회맹연』 『옥린몽』 『옥원재합기연』 『몽옥쌍봉 연록』 『곽장양문록』 등의 작품에서는 이미 그 다채로운 면모들이 상당히 확인되고 있다.

이제 문학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읽어내는 데에 있어서 혹시나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여만 한다고 우리를 다그치는 암묵적인 잣대는 없는지 반추해 보고, 글을 읽어내는 잣대를 다원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억압으로부터의 탈주를 꿈꾸어야 한다.

아마도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이 여성들의 존재를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현성록』 속에 드러난 여성문제는 곧 오늘날의 여성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현성록』의 여성 인물들을 살려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음의 인용으로 답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는 '조선적' 여인이란 유교이념이 조선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에 속속들이 침투한 후, 즉 조선후기나 되어야 등장할 수 있는 여인상이다.……아직 유교화되지 않았던 조선시대를 산 조선여인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이들은 인내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더욱이 굴종하지 않았다. 이들의 생활은 개방적이고 활달했다. 조선시대에도 '조선적'이지 않은 여인들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다.⁵⁷⁾

57) 이영화, 『조선시대 조선사람들-조선의 사농공상, 어떻게 살았을까?』(가람기획, 1998), p.158.